

## 중국근대 자유주의의 계보와 유산

### 1. 서언 : 중국의 근대 자유주의의 환기

#### (1)

개혁 개방 이후부터 치더라도 중국에서 자유주의가 새롭게 제기된지 30년이 지났다. 이후 중국 자유주의는 상당한 변화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상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좌파’로 부터는 물론이고 정치적 금고를 수반한 관방 이데올로기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 자유주의의 현실이다. 게다가 중국 자유주의는 여기에 독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失語와 离场’ 현상이 지속되면서 그 실체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할 정도이다.<sup>1)</sup> 물론 현재 중국에서 자유주의를 둘러싼 쟁론은 개혁개방 이후 일련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 전모를 단순히 정리하기는 어렵다(중국모델론). 그렇지만 중국의 자유주의는 이제 단순한 계몽사상을 넘어선 제도와 실체를 갖는 ‘토착화’를 시도하고 있는 진행형 정치, 사상, 운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제기되는 ‘냉전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배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한편 이와 관련하여 중국 근대 자유주의 경험의 새롭게 호명되고 있는데, 맥락은 무엇이고 그 유산과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알다시피 중국에서 자산 계급의 계급사상이자, 개량주의(반혁명/반동) 사상으로 치부되었던 자유주의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역시 개혁 개방이라는 정치 사회적 조건 때문이었다. 문혁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개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집권당의 사상해방에서 유래하는 “진리 표준” 논쟁을 계기로 맑스주의 내부의 자기반성이 진행되었다. 문혁시기 극좌 사상의 청산과 봉건 전제의 유독에 대한 비판이 그 전제였다.<sup>2)</sup> 그리고 이러한 사상해방은 사회적인 해빙으로 이어져서 민간 문학 예술이 등장하고, 철학, 정치, 역사 등 인문사회 전 영역에서 과거에 대한 성찰과 자유주의의 핵심가치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당시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과 그 봉건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적 대안으로서 자유주의를 호명하였다. 하이야크 등을 비롯한 서구의 자유주의 전통과 함께 중국의 근대 자유주의를 사상 자원화 하려는 관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근대 자유주의에 대한 (역사학계의) 관심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과거 혁명사를 반성하고 중국의 근현대사를 새롭게 재구성 해보려는 시도에서 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국민혁명사 중심의 논의 대한 상대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특히 중국은 오랜 자유주의 역사가 있고, 또 근대 중국에서 자유주의는 사회주의나 민족주의에 의해 배제되고 주변화 되었으나, “국민(민족)혁명“, “사회주의식 근대화”에 가려진 근대 역사를 재음미할 수 있는 매개로서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하였다.<sup>3)</sup> 특히 자유의 가치와 정

1) 榮劍, 「중국 자유주의 제삼의 물결」(2012), 石井知章, 『現代中国のリベラリズム思潮 ; 1920年代から2015年まで』, 藤原書店, 2015

2) 姜義華,

3) 村田 雄二郎, 『リベラリズムの中国』, 有志舎, 2011

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진지한 흐름은 지속되었으며, 청말 민국, 인민공화국 초기, 전후 대만 등을 시야에 넣으면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기원과 계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 연구 경향과 방법

만청이래, 청조와 함께 제국 이데올로기로서 유학이 붕괴하면서, 새로운 사상자원으로서 자유주의가 유입되었고, 엄복, 양계초에서 시작하여 채원배, 호적, 장군매등으로 이어지면서 주요한 사상맥락을 형성했다.

우선 중국에서 근대 자유주의는 서구에서 수용한 것으로 전제하면서,<sup>4)</sup> 그 기원과 관련해서는 개념사, 사상사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특히 엄복(自繇, 自由)이나 양계초(民權, 自由) 등이 이해한 개인주의와 관련하여 유가사상의 영향, 국망의식(민족의식), 중국어 문맥상의 제약 때문에 의식, 무의식적으로 서구의 원개념을 誤譯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의 근대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는 중요 인물/개념사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사상 자체 보다는, 그와 관련한 정치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중국에서 근대자유주의가 국가 건설의 방편으로 수용되었고 추동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 중국에서 근대 자유주의는 하오창이 설명한 근대적 전환기(1890-1920년대)기 학교, 신문, 출판, 전교등을 기반으로 국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여론 공간이 출현하면서 서구 자유주의 핵심가치들이 수용되었다. 또 물론 이를 주도하면서 전통사대부에서 신지식인으로 전환한 다수의 사상 주체가 형성되는데 이들의 활동(사회적 통합과 계몽) 통해 중국 자유주의의 기본 성격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예컨대 독립적인 개인 보다는 사회를 중시하고, 그를 통해 미숙한 시민과 군주를 영도하여야 한다는 발상이 그러한 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근대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는 다음 두가지 경향성을 보이는데, 첫째는 자유의 개념과 자유주의를 서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국에서 그것의 결여, 배제, 좌절, 왜곡을 지적하는 경향이다. 이 경우 근대 자유주의를 자각한 선구적 개명적 지식인의 고립과 권력에 의한 억압을 주로 서술한다. 둘째 중국사에 대한 내재적 공감의 입장에서 중국적 자유의 주체를 강조하는 경향이다(장태염, 양수명). 이 경우 서양의 자유주의를 상대화 하고 문명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다만 중국이 근대에 타율적으로 편입된만큼 자유의 수용 과정 역시 타율성이 있지만 시민사회와의 거리로서 중국의 자유주의를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다.<sup>5)</sup>

또 중국의 근대 자유주의와 관련하여 그 계몽성을 강조하거나, 또 제삼세력으로서 주목하는 연구도 있으나,<sup>6)</sup>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 2. 근대 자유주의의 계보

4) cf, 드베리, 『중국의 자유 전통』, 이산

5) 村田 雄二郎, 2011

6) Roger B. Jeans, Roads not taken, 1992

Roger B. Jeans Democracy and Socialism in Republican China [Paperback] Dec 17, 1996 ; Edmund S. K. Fung, *In Search of Chinese Democracy: Civil Opposition in Nationalist China, 1929-1949*, 2006

1) 「胡適派學人群」與現代中國自由主義(章清, 2004)

-오사이후 지식인의 이념적 분화와 결집

『신청년』-『努力』(努力會, 1921, 「爭自由的宣言」)-(『現代評論』)『新月』(評社, 1929)-『獨立評論』(1932)-『自由中國』(1946)

-정치를 매개로 국가권력의 확장을 제한

-자유주의 실현

-32년 이후 행정효율화, 전문화, 그리고 현대국가건설을 위해 국민정부에 참여

- 2차 대전후 냉전 자유주의로 전환

cf, 「냉전시기 호적 반공자유주의 노선의 형성」『동양사학연구』118, 2012

## (2) 연구계 지식인과 국가건설

-梁啓超를 중심으로 張東蓀, 張君勱, 藍公武등 : 英國式 憲政主義(민초 공화정, 진보당)-사회개조론(오사 이후 길드사회주의, 직업대표제)에 기초한 자치주의-페이비언 주의, 국가사회주의(국가사회당, 1932)등

-『北京晨報』, 『時事新報』, 『解放與改造』, 尙志學會외에 江蘇教育會, 商務印書館, 『東方雜誌』, 中國公學, 國立政治大學 -『再生』

-국가권력은 이성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

정당(정치지식을 가진 지도자)과 사회에 의해 국가 권력은 제한되어야 하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도구

## (3) 유교적 자유주의

-양수명 등 신유가 : 국가권력이 아니라 향촌자치와 지식인의 도덕적 실천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국가건설을 요구

이상의 연구에서 보면 중국에서 자유주의는 시종 지식인들의 고립적 분산적 운동을 면치 못했음 그럼에도 운동이 지속되었던 것은 공화정 붕괴 이후 ‘당치’를 앞세운 국가권력의 전제성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전후에도 지속되었음. 여기에서 지식인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삼민주의, 당치(민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함으로써, 계몽적 역할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음

## 3. 자유주의의 제도화 시도

### ○ 헌정운동

-민초 공화정(제헌운동), 호정부론(계획적 정부)

- 북벌이후 : 오오헌초(1936. 5.5.) -중화민국헌법(1946)

·정치과정

· 통치형태(민위기구로서 국민대회와 치권기구로서 오부(행정원, 입법원등의 관계) , 국민대회의 상설화

· 인권의 제도화(간접->직접)

- 자유와 평등의 조화(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상당부분 용인)
- 치안유지법등 국가폭력에 대한 제약?

#### ○ 냉전 자유주의

- 자유주의의 이념화(공포 의식과 국가 폭력, 국민에 대한 정보의 파악)
- 『자유중국』과 『민주평론』(유교자유주의)
- \*대만 민주운동사, 대만인권운동사(제도적, 법률적, 비법률적 국가폭력의 정리)
- 훈정시기 당치(국민당 전국대대회야 중앙집행위원회)-대만성 행정장관공서(준전시계엄)  
「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정치반란조례」등
- 계엄법제 :
- 백색공포

#### 4. 최근 중국 자유주의의 분화 및 주변화

##### ○ 80년대 계몽과 90년대 이후 사상계의 분화

“80년대는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지식인이 자유주의 세력으로서 현재 신좌파의 우두머리는 물론, 고전자유주의 전통주의의 대표인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식인 집단이 모두 자유주의의 깃발을 들고 싸웠다. 그들은 공동으로당을 비판하면서, 함께 합작과 대항의 전략을 구사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마침내 거대한 정치 풍파 앞에서 사분오열 되었다. 90년대는 특히 중국 사상계가 분화하여, 신좌파와 자유주의자로 분화하였다.”

-자유주의 첫째 그룹(李慎之、徐友漁、劉軍寧、秦暉、汪丁丁、王元化、朱學勤、許紀霖、袁偉時 等)은 80년대 신계몽의 전통을 이어서, 자유주의의 거대한 서사방식으로 자유주의 이념과 전통을 주장하면서 혁명과 민주를 반성하고 급진주의적 시각 및 현행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전면적인 비판. 사상자원의 측면에서 그들은 주로 하이야크, John Rawls(1921-2002)、하버마스, 이자야 벌린 등 서방 자유주의의 대가들의 관점을 인용하면서, 동시에 중국 본토의 채원배, 호적등의 자유주의 전통을 재해석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자유주의 사상의 해석과 선전을 중시하기보다는 자유주의의 역사, 헌정、법리、건국 등 주장 및 중국 문화 전통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전문화 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高全喜、任劍濤、秋風、許章潤、劉蘇里、豐森 등은 당연히 주로 학계에서 논의를 진행.

자유주의는 사회계몽과 사회 비판의 사명을 달성 한 이후 다음 단계의 창조적인 구축작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곤란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이론 차원의 건설만이 아니라 국가건설, 사회건설, 민족건설과 국제관계 건설 등 일련의 과정과 방안 설계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세력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문제는 통치권력, 상인계층, 대중 누구와 어떻게 손을 잡고 정치개혁을 주도할 것인가? 거대한 토착적인 이론을 창출하고(유교, 공민자유주의), 제도적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5. 결어 : 근대자유주의의 유산

○ 중국의 근대 자유주의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면서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이성에 의한 국가권력의 제한을 축하하면서 일관되게 헌정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정치행위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있다는 현대국가의 원리에 따라 “혁명”, “삼민주의”, “맑스주의” 맹목성과 통속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적 개혁을 추구해온 것이다. 이러한 이성 정신은 혁명, 냉전사적인 전개과정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대만의 민주주의의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적 근대’를 이해하면서 더욱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村田 雄二郎 , 『リベリズムの中国』, 有志舎, 2011  
石井 知章, 『現代中国のリベリズム思潮 ; 1920年代から2015年まで』, 藤原書店, 2015  
石井知章 編, 『中国リベリズムの政治空間』, 勉誠出版, 2015  
加々美 光行, 『未完の中国—課題としての民主化』, 岩波書店, 2016  
子安宣邦, 『帝国か民主か—中国と東アジア問題』, 社会評論社, 2015  
毛里 和子, 『中国政治—習近平時代を読み解く』, 岩波書店, 2016  
狭間 直樹, 『梁啓超; 東アジア文明史の転換』, 岩波書店, 2014/4/20  
櫻井 良樹, 『華北駐屯日本軍—義和団から盧溝橋への道』, 岩波現代全書, 2015  
水羽 信男, 『中国近代のリベリズム』 東方書店, 2007  
  
Roger B. Jeans, *Roads not taken*, 1992  
Roger B. Jeans, *Democracy and Socialism in Republican China*, 1996  
Edmund S. K. Fung, *In Search of Chinese Democracy: Civil Opposition in Nationalist China, 1929-1949*, 2006